

## 히다카 산맥과 도카치 평야

도카치 평야는 홋카이도 중앙부에서 남부로 펼쳐진 광활한 평야입니다. 서쪽은 히다카 산맥, 북쪽은 다이세쓰산계, 그리고 남쪽은 태평양에 접해 있습니다. 홋카이도 전체 면적(83,424km<sup>2</sup>)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를 가지며 홋카이도 최대 규모의 농촌 지대입니다. 도카치 평야의 형성은 대륙판이 충돌해 히다카 산맥이 탄생한 약 1300 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 판의 충돌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은 충돌하면서 위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북아메리카판은 휘어져 유라시아판 위에 올라타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히다카 산맥은 이 2 개의 판이 충돌한 부분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판이 휘어지면서 히다카 산맥 남동쪽에 언덕이 생겼고 그 사이에 있던 육지가 가라앉으며 구조분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형성된 분지가 훗날의 도카치 평야인데, 처음에는 태평양 해저에 있었으며 지금보다 훨씬 내륙 쪽으로 뻗어있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바다에서 습지대, 평야로 변화해 현재의 도카치 평야가 되었습니다.

### 지형 변화 과정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에서는 히다카 산맥과 도카치 평야가 형성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 오기가하라 전망대

오기가하라 전망대는 히다카 산맥과 도카치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해발 약 2,000m 규모의 산들이 남북으로 약 150km 뻗어있습니다. 포로시리산은 해발 2,052m 로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전망대에서는 히다카 산맥을 배경으로 한 웅장한 도카치 평야를 즐길 수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판의 움직임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 시모시카오이 아탄층

아탄은 수십만 년에 걸쳐 식물이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퇴적된 결과 서서히 압축, 가열되어 형성되는 가연성 퇴적암입니다. 이는 갈탄이라고도 불리며, 탄소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석탄화도가 높은 석탄보다도 연대가 어렵니다. 시카오이초 남부의 시카리베쓰강 강변에는 복수의 아탄층이 노출된 곳이 있는데, 이는 이곳이 습지와 육지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